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

- 평균발화길이(MLU)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선정 · 김목아  
(계명대학교)

## 1. 머리말

제2 언어 학습자들의 독특한 언어체계인 중간언어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도달해 가는 과정, 즉 학습자의 외국어 습득 양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승연, 2006). 이러한 중간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분명한 접근은 학습자의 언어, 즉 학습자들의 발화와 쓰기 자료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 자료가 겹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서 표현능력과 같은 학습자의 언어적 기저 능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Brown, 2007).

최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습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좀 더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다수가 학습자들이 학습에서 범하는 오류에 관한 연구들인데, 주로 어휘 오류나 조사, 어미, 시제 표현에서의 오류 등 학습자들이 산출해 낸 개별 항목에 대한 오류 분석 연구들이다. 고석주 외(20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류 분석 연구는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를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학습자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어 학습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그 극복방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의 오류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학습자 언어에서 오류로 산출되지 않은 부분에 나타난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 양상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학습자가 해당 어휘나 문법 항목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 언어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분석만으로 학습자의 오류 체계와 중간언어 발달 양상을 파악하기는 부족하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분석에 있어서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그 방법 중 하나로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평균 발화 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를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어휘 영역에 관한 연구들이 오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오류가 아닌 부분까지 아울러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특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어 학습자 중간언어 발달 양상에 나타난 언어 능력을 모아 화자인 한국인 대학생과 비교하여 목표어에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그 양상도 함께 보일 것이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연구 대상

- 
- 1) 학습자 중간언어에 대한 연구가 오류 분석에만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들이 오류의 많고 적음을 단계화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학습자 언어 발달 과정이나 문법적 규칙의 체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김정은, 2003).
  - 2) 최근 몇몇 연구에서 학습자의 단순한 오류 분석만으로 보여줄 수 없었던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체계를 보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해영 (2003), 박지순·서세정(2009), 박은정(2010) 등이 있다.

연구 대상은 중국인 학습자 60명(초급, 중급 각각 30명<sup>3)</sup>)이 쓴 작문 60부와 모어 화자인 한국인 대학생들 15명이 쓴 작문 15부이다. 분석 대상자들로 선정된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구광역시 소재 K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이며, 이들의 한국어 학습기간 초급은 6개월 미만, 중급은 6개월~1년 미만이고, 모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다.

## 2.2 자료 수집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에 와서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이유” 라는 주제<sup>4)</sup>로 수업시간(50분) 내에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도록 하였다.<sup>5)</sup> 또한 채점이나 평가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가 아니라는 점을 주시켜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를 목적으로 한 작문일 경우, 학습자들이 자신 없는 어휘, 문법 항목, 표현 등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오류를 줄이려는 경향이 많아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6)</sup>

중국인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해 보기 위해 모어 화자

- 
- 3) 여기서 초급, 중급이란 TOPIK 급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K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초급(1~2급), 중급(3~4급)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급이다.
  - 4) 본고는 MLU를 중심으로 초·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에 나타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만일 작문 주제가 난이도가 있을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글감 선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 5) 숙제를 부여할 경우 학습자들이 사전이나 다른 참고자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6) MLU는 그 표본이 추출된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MLU 분석을 위한 자료는 가능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추출해야 한다(김태경 외, 2006).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쓴 글을 가지고 MLU를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교실환경에서 글을 쓰게 하였다. 그러므로 평가를 목적으로 한 시험자료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에서 쓴 작문자료가 MLU를 살펴보는 데 더 유용하리라 본다.

인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 15부를 함께 수집하여 비교기준으로 삼았다. 주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 주제와 유사한 “대학교에 온 후 경험한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이유”로 길이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다.<sup>7)</sup> 그 외는 중국인 학습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글을 쓰도록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정보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초급	중급	
배경	한국어 교육기관 재학		대학생 (인문계열 전공)
연령	20대 초, 중반		20대 초, 중반
자료 수	30	30	15
총 어절 수	3,818	5,127	3,821

## 2.3 연구 방법

### 2.3.1 분석 단위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평균 발화 길이를 뜻하는 MLU는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산출방법이 달라지는데, 본고에서 살펴볼 것은 평균 낱말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in words: MLU-w)와 평균 형태소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 in morphemes: MLU-m)이다. MLU-w는 총 낱말 수를 총 발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고, MLU-m는 총 형태소 수를 총

7) 중국인 학습자들과 한국인 대학생들의 작문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각각 ‘한국에 온 후’, ‘대학교에 들어온 후’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험적 글쓰기라는 장르적 특성에서는 동일하며, 한국과 대학이라는 범위의 차이가 그들이 쓴 문장에서 MLU나 문법적 특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본다.

발화 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이다. MLU를 분석한 서양의 여러 연구들이 Brown의 분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교착어인 한국어는 굴절어인 영어와는 달리 형태소가 많이 결합하는 언어이므로 Brown의 기준을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박은정, 2010). 그래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MLU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그 분석 단위를 달리 하고 있다.<sup>8)</sup> 본고에서는 MLU-m과 MLU-w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김영태(1997)의 기준을 따르되 분석 자료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에서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서 이루어진 MLU 관련 연구들이 모두 자유 발화, 즉 구어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1문장 1발화를 원칙으로 하여 머뭇거림, 자가 수정이나 동일어 반복, 간투사 등 구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준 단위를 세웠다(김영태, 1997).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 즉 문어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 단위 재설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 단위를 종결어미와 구두점 ‘., ?, !’으로 끝나는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자료가 논리적인 글이 아닌 경험적 글쓰기이므로 주어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나 구두점을 기준으로 하되 서술어가 분명히 나타나는 문장만을 문장으로 인정하였다.<sup>9)</sup>

본고의 연구 대상이 문어 자료임을 고려하여 그 낱말과 형태소의 구분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MLU-w 분석 시 조사를 하나의 낱말로 보기도 하고(김영태, 1997), 조사를 낱말로 취급하지 않기도 한다(배소영, 2000).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의 대상이 되고 한국어 교육에서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가지는 조사를 하나의 낱말로 취급하기로 한다.

9) 학습자들의 문장에는 ‘제가 눈이도(√눈도) 먹어 봤어요. 맛이는(√맛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에 왜 온든지(√왔는지) 많은 친구들은 몰랐습니다.’처럼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오류 수정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류를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학습자 중간언어의 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오류를 범하였지만 해당 어휘 혹은 표현을 이미 습득하였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법적 오류도 그대로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2〉 낱말 구분 원칙<sup>10)</sup>

낱말 구분 원칙
① 모든 자립형태소는 개별적인 낱말로 계산한다.
② 조사는 개별적인 낱말로 계산한다. (단, 학교문법에서 서술격조사로 보는 ‘이다’는 조사가 아닌 용언으로 분류한다. <sup>11)</sup> )
③ 준자립어(의존명사, 보조용언)는 개별적인 낱말로 계산한다.
④ 1품사 1낱말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복합어라도 일반적인 고유명사의 경우 한 낱말로 취급한다. (예) 우방랜드, 부산국제영화제
⑥ 품사가 진성되었을 경우에는 한 낱말로 취급한다. (예) 경험하다, 생활하다 (각각 낱말 수: 1), 경험은, 생활이 (각각 낱말 수: 2)

〈표 3〉 형태소 구분 원칙

형태소 구분 원칙
①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더 분석하면 그 뜻을 잃어버리는 말을 형태소로 분류한다.
② 조사나 어미는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③ 조사가 중첩되어 나타날 경우, 각 조사를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간주한다.
④ 매개모음은 개별적인 문법형태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⑤ 한 의미를 가지고 중복되어 표현한 어휘는 하나의 형태소로 계산한다. (예) 찹찹찰찰, 따르릉따르릉
⑥ 줄임말의 경우 그 본디말로 바꾸어 형태소를 분석한다.
⑦ 의존형태소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경우 개별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한다. (예) 학교, 영화관, 작업장

10) 김영태(1997)의 낱말 구분 원칙을 기준으로 삼되, 학습자 작문 자료 분석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정·보완하였다. 김영태(1997)에서는 어절을 낱말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절과 낱말을 구분하였다.

11) 이는 허용 외(2005)의 낱말 분류를 따른 것으로, 학교문법에서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다)’가 독립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체언 등의 말과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지만, 다른 용언들처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용언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 2.3.2 자료의 처리

수집된 학습자들의 자료를 한글에 입력하고<sup>12)</sup>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MLU-w와 MLU-m 분석에 필요한 개별 작문당 사용된 문장 수는 구두점 ‘.’ 개수를 검색해서 그 수를 세었다. 또한 MLU-w 분석을 위해 각 문장에서 낱말을 분석 기준에 따라 ‘/’로 구분한 뒤 ‘/’표시를 검색해서 그 수를 세었다.

다음으로 MLU-m 분석을 위해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로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고,<sup>13)</sup> 분석 결과를 Excel 프로그램에서 열어 구두점이나, 숫자 등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형태소 개수만을 세어서 그 값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개별 작문에서 측정된 낱말 개수, 형태소 개수를 초급,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으로 분류하여 Excel에 입력하고 정리한 뒤, 기준 단위인 문장당 평균을 계산하였다.

## 3. 평균 발화 길이(MLU)<sup>14)</sup>

MLU는 주로 유아들의 표현 언어 발달지표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유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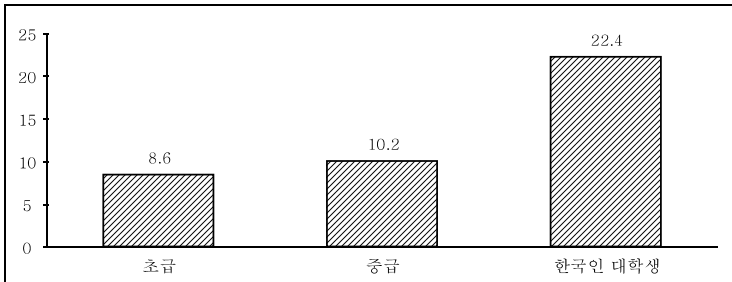
- 
- 12)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띄어쓰기는 어절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만 수정하여 입력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표기 오류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한 의미 어휘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표기 오류를 그대로 인정하여 입력하였다.
- 13)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의 형태 분석은 한국어에 존재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 품사는 다르지만 형태가 동일한 경우, 동일 품사 내에서 형태가 동일한 경우, 여러 개의 변이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판단 등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하고 있지는 않아 분석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나타난 분석 오류를 수작업을 거쳐 수정하였다. 이 수정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 이외에, 본 연구에서 품사 분류, 어휘 분류 시 용이성을 위해 추가로 수정을 실시하였다.
- 14) MLU는 문장의 길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발달 정도를 예측하는 도구이므로, 구체적으로 구문구조의 복잡도나 문법적 능력을 나타내 주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허현숙, 2003). 본 연구에서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중간언어를 살펴봄에 있어 MLU를 사용한 것은 MLU를 통하여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며 MLU 값이 학습자들의 전체적 문법발달 능력이 어떠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밝힌다.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언어입력과 그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을 연구한 박은정 (2010)에서 MLU 분석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그 자녀의 발화 분석에 MLU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인 초, 중급 중국인들의 작문 자료 분석에 MLU를 적용하고자 한다.

### 3.1 평균 낱말 길이(MLU-w)

MLU-w는 발화의 총 낱말 수를 총 발화수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쓴 작문 한 편의 총 낱말 수를 총 문장 수로 나누어 그 값을 구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MLU-w 양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집단별 평균 MLU-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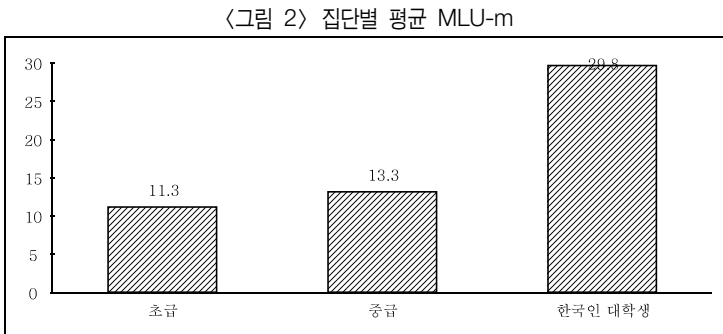
MLU-w를 통해 학습자가 한 문장에서 몇 개의 낱말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MLU-w 값이 높다는 것은 많은 낱말을 사용해서 문장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MLU-w 값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적은 수의 낱말로 문장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초급과 중급의 MLU-w 값을 비교해 보면 중급이 초급보다 약 1.3배 더 높아 숙달도에 따라 언어 발달 정도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들의 MLU-w 값을 비교해 보면 한국인 대학생들이 초급, 중급 학습자에 비해 각각 약 2.6배, 약 2.2배 높아 MLU-w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한국인 대학생보다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이 낱말 사용에 있어서 적은 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평균 형태소 길이(MLU-m)

MLU-m은 문장 내 평균 형태소 수를 나타내는 값으로 MLU-m 값이 큰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다양한 문법형태소들을 결합시켜 문장을 생산해 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LU-m은 문법 발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세밀한 분석척도이다(이현정 외, 2003).

초급,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집단별 MLU-m 양상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MLU-m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숙달도가 높아질 수록 MLU-m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과 한국인 대학생의 MLU-m 값을 비교하면 한국인 대학생의 MLU-m이 초급 학습자의 2.6배, 중급 학습자의 2.2배로 두 집단 간 MLU-m 차이에 비해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낱말보다 문법형태소의 사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sup>15)</sup> 더구나 연구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들의 모어인 중국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고립어로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한국어로 문장을 쓸 때 조사나 어미 등의 문법형태소들을 자주 생략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학습자의 특징이 MLU-m 양상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15) 박은정(2010)에서도 일반가정 어머니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MLU-w 평균의 차이가 2.00을 넘지 않았는데 MLU-m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져 3.00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이든 학문 목적 학습자이든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형태소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있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과 비교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 MLU-m 값은 연결어미, 전성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필수적인 복문의 사용 양상에서도 그대로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평균 발화 길이의 분석 결과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지면서 MLU-w와 MLU-m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단어와 형태소를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의 MLU를 한국인 대학생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의 MLU-w와 MLU-m 값에 확실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MLU-m에서 더 큰 차이를 보여 문법형태소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어휘적 특성

이 절에서는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어휘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어휘에 관한 지식은 목표어 어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양적인 측면과 습득한 어휘를 어느 정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오주환, 2010). 언어교사나 연구자는 학습자 언어에 나타난 어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휘에 대한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이 어떤지, 어휘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발달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어휘적 특성에서는 학습자들이 어휘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품사별 사용 양상은 어떤지, 그 중에서도 용언의 사용 양상이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 4.1 어휘 다양도(Type-Token Ratio: TTR)<sup>16)</sup>

어휘에 대한 다양도 분석은 학습자의 표현 자료에 드러나는 누적 어휘 수 대비 어휘 유형의 비율을 살펴 학습자의 표현 어휘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 어휘를 구사하는가 하는 점을 추정해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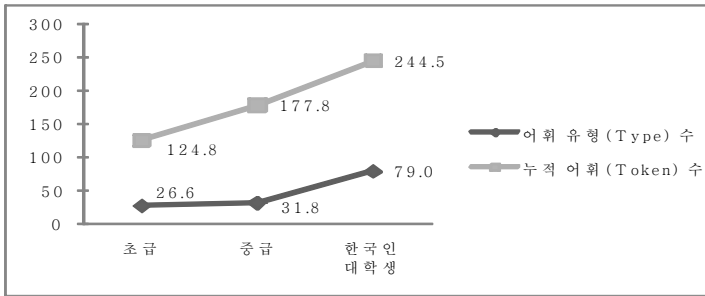
16) 어휘 다양도(TTR)는 어휘 유형(type) 수를 누적 어휘(token) 수로 나눈 것으로 그 값이 클수록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방법이다(안경화, 2003a).<sup>17)</sup> 여기에서는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작문 자료에 나타난 학습자 어휘의 다양도를 측정하여 숙달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소는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느냐 문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실질형태소(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형식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허용 외, 2005), 어휘 다양도 분석에서는 실질형태소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18)</sup>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누적 어휘 수와 어휘 유형 수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그림 3>에 초급,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평균 총 어휘 수 및 어휘 종류 수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sup>19)</sup>

<그림 3> 집단별 어휘 유형(Type) 수 및 누적 어휘(Token) 수<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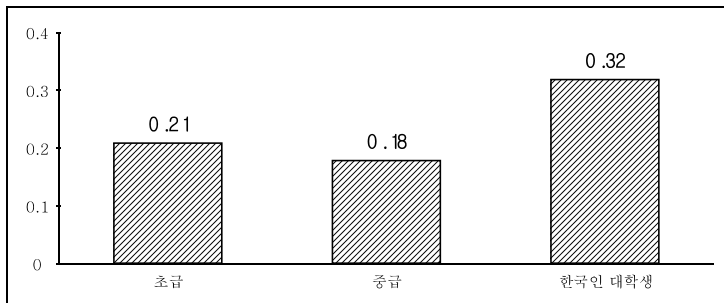
- 17) 어휘 유형은 각기 다른 단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무시하고 1회로 계산한 것이며, 누적 어휘 수는 하나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타난 것으로 얼마든지 반복하여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서상규·한영균, 1999).
- 18) 실질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이므로, MLU-m 측정 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자료에서 의존형태소인 어미, 접두사, 접미사, 어근과 조사, 그리고 출현빈도가 극히 낮은 감탄사를 제외한 체언, 용언, 수식언을 분석 자료로 삼았다.
- 19) 초급, 중급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 수가 30편, 30편, 15편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어휘 수를 제시하지 않고 1인당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 20) Leadholm & Miller(1992)는 ‘누적 어휘 수’는 학습자가 얼마나 많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느냐를 알 수 있는 수치이며 유창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 유형 수’는 학습자가 적절한 곳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언어사용에서 의미적인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이현정 외, 2003).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 중급 학습자, 한국인 대학생들의 누적 어휘 수는 작문 한 부당 각각 평균 124.8개, 177.8개, 244.5개이다. 초급, 중급, 한국인 대학생으로 갈수록 누적 어휘 수가 증가하며,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양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유창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어휘 유형 수는 초급 학습자, 중급 학습자, 한국인 대학생의 작문 한 부당 각각 26.6개, 31.8개, 79개로 나타났다. 누적 어휘 수와 마찬가지로 초급, 중급, 한국인 대학생으로 갈수록 많은 종류의 어휘를 사용하여 작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적 어휘 수와 어휘 유형 수는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빈도와 어휘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지만 자료의 성격이나 분석자의 기준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택된 개별 학습자가 문장을 쓸 때 특별히 길게 쓰거나 혹은 짧게 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적 어휘 수나 어휘 유형 수가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이나 어휘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래서 누적 어휘 중에서 각기 다른 유형의 어휘가 사용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휘 다양도를 측정하였다.<sup>21)</sup>

〈그림 4〉 집단별 어휘 다양도



21) 어휘 다양도는 계량적인 수치를 넘어서 비율로 환산되기 때문에 어휘력이나 표현력을 측정하는 데 보다 객관적인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최용석·전은진, 2008).

그림 4는 집단별 어휘 다양도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100단어당 초급 학습자는 21개, 중급 학습자는 18개, 한국인 대학생은 32개의 새 어휘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들과 한국인 대학생들의 어휘 다양도를 비교 하면 한국인 대학생들의 어휘 다양도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인 학습자보다 한국인 대학생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여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어휘 사용이 더 풍부해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간의 어휘 다양도는 비록 그 값의 차이가 미미하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중급 학습자들은 어휘 사용의 유창성 면에서 초급 학습자들보다 앞서 있어 어휘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어휘의 다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2)</sup>

#### 4.2 품사별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초, 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 양상에서 품사별 분포의 차이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품사는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그 분류를 달리 하지만 본 연구에서 품사 분류의 기본적인 틀은 학교 문법의 9품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조사와 감탄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

22) 안경화(2003b)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숙달도(초, 중, 고급)에 따라 2,000여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다양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어휘 다양도는 고급으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달리 초급보다 중급의 어휘 다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첫째, 텍스트 크기 차이와의 관련성이다. Meunier(2001)는 텍스트의 처음 100단어가 뒤에 나오는 텍스트에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텍스트의 크기가 작을수록 다양도가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급과 중급의 텍스트는 각각 30부로 표본 수는 같지만 크기가 각각 3,818어절, 5,127어절로 차이가 나는데 텍스트의 차이로 인해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휘의 다양도와 쓰기 숙달도의 관련성 정도이다. Meunier(2001)는 영어의 학습자 말뭉치에서 고급의 어휘 다양도가 0.407로 중급의 0.402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모국어 화자는 이보다 적은 0.396으로 나타났음을 언급하면서 어휘의 다양도와 쓰기 숙달도의 관련성 정도에 대해 더욱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는 한국어에서 표현력이나 어휘력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품사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중요한 학습 대상이 되는 품사이지만 동시에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여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품사이기 때문에 조사 분포의 양적인 계량만으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감탄사는 분석 자료가 작문 자료인 관계로 사용 빈도가 극히 낮게 나와서 어휘 사용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유의미하지 못하다고 여겨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연구의 품사 분류와 학교 문법의 품사의 차이점은,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분류하고 있는 ‘이다’를 용언으로 파악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sup>23)</sup> 그 외에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를 분석할 때 ‘아니다’는 부정지정사로 분류되는데 이는 학교 문법에서와 같이 형용사에 포함하였다.

초급,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품사별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위에서 분류한 품사를 그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으로 묶어 대략적인 경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집단별 품사 사용 비율(기능에 의한 분류)<sup>24)</sup>

		체언	수식언	용언	합계
초급	어휘 수	436	107	259	802
	빈도 수	1,931	605	1,269	3,805
	비율	<b>50.75</b>	<b>15.90</b>	<b>33.35</b>	100
	사용률	<b>28.42</b>	<b>8.90</b>	<b>18.67</b>	55.99

23) 이는 본 연구가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용 외(2005)에서도 ‘이다’를 동사, 형용사와 함께 한국어 용언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이다’는 비록 독립적으로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체언 등의 말과 결합하여야 하지만 이는 ‘이다’가 다른 용언과 같이 주로 서술어로 쓰이며, 활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4) 어휘 수는 어휘 종류 수로 각 품사에서 중복하여 나타난 것을 무시하고 1회로 계산한 것이며, 빈도 수는 총 어휘 수를 뜻한다. 또 비율은 빈도의 합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해당 품사의 사용 비율이고, 사용률은 전체 작문, 즉 조사, 어미, 감탄사까지 포함된 전체 형태소의 총계를 기준으로 사용된 비율을 의미한다.

중급	어휘 수	545	120	306	971
	빈도 수	2,769	860	1,843	5472
	비율	<b>50.60</b>	<b>15.72</b>	<b>33.68</b>	100
	사용률	<b>28.77</b>	<b>8.94</b>	<b>19.15</b>	56.86
한국	어휘 수	646	152	410	1208
	빈도 수	1,846	496	1,561	3903
	비율	<b>47.30</b>	<b>12.71</b>	<b>39.99</b>	100
	사용률	<b>25.35</b>	<b>6.80</b>	<b>21.41</b>	53.56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초급,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 모두 전체 어휘에서 체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 대학생의 경우 47.3%로 절반보다 조금 적었고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경우 각각 50.8%, 50.6%로 전체 어휘에서 절반이 명사였다.<sup>25)</sup> 이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명사가 다른 품사에 비해 제약이 적어 상대적으로 학습하기 쉽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수식언의 사용에 있어서 초급과 중급 학습자 간에는 전체 어휘 내 비율이나 전체 작문에서의 사용률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 간의 수식언 사용에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 차이는 부사 중 접속부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별 접속부사 사용 양상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집단별 접속부사 사용 양상<sup>27)</sup>

NO	초급		중급		한국인 대학생	
	접속부사	누적빈도	접속부사	누적빈도	접속부사	누적빈도
1	그래서	23	그래서	41	그리고	10
2	그런데	16	그리고	21	또	9
3	그리고	15	그런데	14	그러나	7

25) 박은정(2010)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일반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약 47.5%,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는 네 명 모두 50%를 넘어섰다.

26) 각 집단의 관형사 사용률은 초급 1.4%, 중급 1.9%, 한국인 대학생 1.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사의 사용률은 초급 7.5%, 중급 7.0%, 한국인 대학생 4.8%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4	또	3	그렇지만	7	하지만	7
5	그러면	2	또	6	그래서	5
6	그렇지만	2	왜냐하면	6	그래도	2
7	근데	2	하지만	4	오히려	2
8	그러니까	1	근데	2	그러더니	1
9	더구나	1	게다가	1	그러면서	1
10			그래도	1	그런데	1
11			그러나	1	더구나	1
12			그러니까	1	소위	1
13					왜냐하면	1
14					즉	1
비율		2.42		1.61		0.9
사용률		0.96		1.09		0.67

<표 5>에서 접속부사 유형을 보면 한국인 대학생이 중국인 학습자보다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어휘에서 접속부사의 비율과 작문 전체에서 접속부사의 비율은 한국인 대학생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장을 연결하는데 한국인 대학생들이 접속부사보다 연결어미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용언의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초급, 중급 학습자 간의 사용 비율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과 한국인 대학생들의 사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초급, 중급 학습자는 약 33~34%인데, 한국인 대학생은 40%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텍스트 내에서 용언 사용률의 경우 초급, 중급 학습자는 약 19%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한국인 대학생은

- 27) 유현경·서상규(2002)의 연구에서도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의 부사 사용을 분석하였는데 접속부사 사용에 있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사용빈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부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전 초급과 중급 학습자 간의 접속부사의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사용률에 있어 비록 미미한 차이지만 중급 학습자의 접속부사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대상을 선정할 때 유현경·서상규(2002)가 대규모 학습자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의 소규모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사 사용 양상 분석에서는 초급, 중급 학습자를 하나로 묶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1.4%로 초급, 중급 학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급, 중급 학습자, 한국인 대학생으로 갈수록 용언의 사용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문장을 구성할 때 더 많은 문법형태소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용언이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 쓰일 때 용언의 기본형이 아닌 활용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용언 사용 비율이 증가할수록 평균 형태소 수를 나타내는 MLU-m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보다 낮은 사용 비율을 보인 용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초급,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서 용언의 사용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4.3 용언 사용 양상

MLU-w, MLU-m과 용언 종류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박은정(2010)의 연구에 의하면 MLU-w와 MLU-m 값이 증가할수록 용언의 수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4>의 기능별 분류를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어 용언의 사용 양상을 <표 6>에서 제시하였다.<sup>28)</sup>

<표 6> 집단별 용언 사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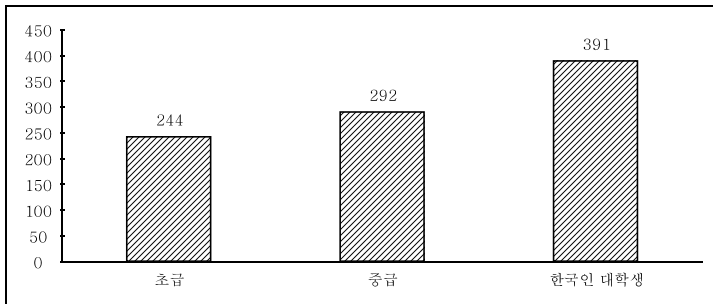
		동사	형용사	이다 <sup>29)</sup>	합계
초급	어휘 수	<b>165</b>	<b>78</b>	1	244
	빈도 수	748	358	75	1181
	비율	19.66	9.41	1.97	31.04
	사용률	11.01	5.26	1.1	17.37

28) 한국어에서 보조용언은 독자적으로 문장의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본용언 뒤에서 본용언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다른 용언들(동사, 형용사, 이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표 7>에서는 보조용언을 제외한 나머지 용언들의 사용비율을 제시하였다.

중급	어휘 수	<b>205</b>	<b>86</b>	1	292
	빈도 수	1054	523	129	1706
	비율	19.26	9.56	2.36	31.18
	사용률	10.95	5.43	1.34	17.72
한국인 대학생	어휘 수	<b>288</b>	<b>102</b>	1	391
	빈도 수	838	345	143	1326
	비율	21.47	8.84	3.66	33.97
	사용률	11.49	4.73	1.96	18.18

먼저 동사의 어휘 수를 살펴보면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고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30)</sup> 이러한 양상과 MLU-w,  
 MLU-m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용언 어휘 수와 MLU-w,  
 MLU-m 값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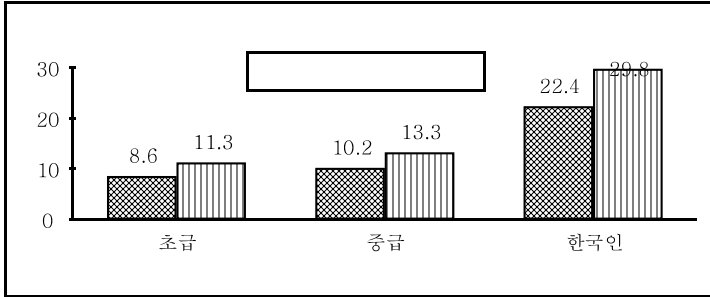
〈그림 5〉 집단별 용언 어휘 수



29) ‘이다’는 하나의 품사는 아니지만 용언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본래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므로 어휘 수가 1이다.

30) 한국인 대학生の 전체 텍스트의 크기가 중국인 유학생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유형의 용언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집단별 MLU-w 및 MLU-m



<그림 5>에서 총 용언 어휘 수는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6>의 MLU-w와 MLU-m 값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총 용언 어휘 수에서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 간의 증가율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 간의 증가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MLU 값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용언 어휘 수의 증가율이 클수록 함께 결합하여 나타나는 문법형태소의 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표 7> 집단별 '이다' 및 '보조용언' 사용 양상

	초급		중급		한국인 대학생	
	어휘 수	빈도 수	어휘 수	빈도 수	어휘 수	빈도 수
이다	1	75	1	129	1	143
	비율	1.97	비율	2.36	비율	3.66
	사용률	1.1	사용률	1.34	사용률	1.96
	비율	2.31	비율	2.5	비율	6.02
보조 용언	15	88	14	137	19	235
	비율	2.31	비율	2.5	비율	6.02
	사용률	1.3	사용률	1.42	사용률	3.22
	비율	1.97	비율	2.36	비율	3.66

<표 7>은 집단별 '이다' 및 '보조용언' 사용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표

6>에서 초급,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용언 사용률의 차이가 ‘이다’와 보조용언의 사용률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sup>31)</sup> 한국어에서 서술어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하나 사용되는 경우, 본용언에 보조용언이 결합하여 ‘본용언+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또 체언 등에 ‘이다’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초급, 중급 학습자의 용언 사용 비율에서 ‘이다’와 ‘보조용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구성할 때 그 방식에 있어 제한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주로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를 사용하여 서술어를 구성하며, 체언 등에 ‘이다’를 결합하거나 ‘본용언+보조용언’ 구성을 사용한다 해도 그 사용률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의 사용률과 MLU-m 값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조용언이 본용언과 결합할 때 ‘가고 싶다’, ‘앉아 있다’, ‘쉽지 않다’처럼 보조적 연결어미와 함께 결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작문 내에서 보조용언이 많이 사용될수록 그만큼 문법형태소인 보조적 연결어미의 사용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초급,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으로 갈수록 용언 어휘 수가 증가하였고 MLU-w, MLU-m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으므로 용언 어휘 수의 증가가 MLU 값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평균 발화 길이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초, 중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중간언어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어 모어 화자인 한국인 대학생들과 비교하였다.

언어 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평균 발화 길이에서 평균 낱말

31) <표 6>에서 동사+형용사의 사용률이 초급 16.27%, 중급 16.38%, 한국인 대학생 16.22%로 거의 같으나 전체 용언 사용률이 각각 18.67%, 19.15%, 21.41%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길이와 평균 형태소 길이 모두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그 값이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 낱말 길이보다 평균 형태소 길이에서 한국인 대학생과 더 큰 차이를 보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문장에서 낱말 사용보다 문법형태소 사용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어휘적 특성으로는 첫째,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대학생에 비해 제한된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어휘의 수나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품사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용언의 사용에서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용언 사용비율이 낮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대학생보다 사용비율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평균 형태소 길이의 양상과 유사한 결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문법형태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용언의 사용과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고립어인 중국어가 모어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착어인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 형태소와 같은 개별 형태소 습득에 좀 더 유의해야 하며 교사들 역시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려움에 유의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고석주·김미옥·김제열·서상규·정희정·한송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2004.
- 김영태,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2, 5-26, 1997.
- 김정은, 「한국어교육에서의 중간언어와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14(1), 29-50, 2003.

- 김태경·이필영·장경희, 「연령 및 성별 변인과 MLU의 상관관계 연구」, 『국제어문』, 38, 107-124, 2006.
- 박은정, 「어머니 언어입력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발달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2010.
- 박지순·서세정, 「쓰기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적 숙달도 측정 연구」, 『언어와 문화』, 5(2), 151-173, 2009.
- 배소영, 『한국어 발화분석 2.0: 활용을 위한 지침서』,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2000.
- 서상규·한영균, 『국어정보학 입문』, 서울: 태학사, 1999.
- 안경화, 「중간언어 어휘론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중언어학』, 23, 167-186, 2003a.
- 안경화, 「중간언어 의미 체계에 대한 질적·양적 실험 연구, 언어간 대조를 통한 매개언어와 중간언어의 연구」, 『대조언어와 한국어 교육 연구단 1차 워크숍』, 85-100, 2003b.
- 오주환, 「한국어 학습자의 능동적 어휘 발달 양상 연구 -초급·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외국어대학교, 2010.
- 유현경·서상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사용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0, 213-234, 2002.
- 이승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오류 표지 방안 제고」, 『이중언어학』, 31, 171-196, 2006.
- 이혜영,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표현 문법항목 발달패턴 연구-구어 발화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중언어학』, 22, 269-298, 2003.
- 이현정·박창일·박은숙·김향희,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언어청각장애 연구』, 8(1), 20-40, 2003.
- 최용석·전은진, 「유아의 어휘 다양도를 활용한 어휘력 평가 기준 시안」, 『한국언어문화』, 40, 359-376, 2008.
-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욱·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2005.
- 허현숙, 「KDLS를 이용한 학령 전 정상 아동의 문법발달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2003.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5th Ed.)*, 『New York: White Plains』, 2007.
- Leadholm, B. J. & Miller, J. F, *Language sample analysis: The Wisconsin guide*, Madison: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1992.

Meunier, F, *Computer tools for learner corpora in Granger(Eds.), Learner English on Computer*, 『New York: Longman』, 2001.

❖ ABSTRACT

## A Research on the Interlanguage of Chinese Speaking Korean 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MLU and Characteristics Found in Vocabulary Usage

Kim, Seon-Jung & Kim, Mok-Ah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shown in the writing data of Chinese elementary/intermediate level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of the learners acquired by error analysis provides only partial information, and thus this study analyses the interlanguage of Korean learners in terms of 'Mean Length of Utterance, MLU' to discover the overall aspect of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more symmetrically. The analysis of vocabulary area is to be enforced after generally studying the learner's language development aspect in accordance with MLU-m(orheme) and MLU-(w)ord found in compositions by Chinese speaking Korean language learners.

In terms of MLU, it has been slightly increased as the level of proficiency between elementary level and intermediate level learners; however, the morpheme seemed to be difficult to use,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university students has been notably shown. Vocabulary diversity, using aspect for each word class, and using aspect of the predicate are studied for vocabulary area; more various and numerous vocabulary tend to be used as the level of proficiency increases. In terms of predicate use, Chinese learners use less numerous vocabulary types.

---

### Key Words

중간언어, 한국어 숙달도, 평균발화길이, 어휘의 다양도, 용언의 사용 양상  
Interlanguag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Mean Length of Utterance: MLU,  
Type-Token Ratio of Vocabulary, Aspects of Predicate Usage



논문접수일: 2011. 01. 30.

심사완료일: 2011. 02. 28

게재확정일: 2011. 03. 10